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방문: 김부호/한춘희 생일: 최요학(10/3), 김준혁(11/4), 김점선(11/5)
2. Hallelujah Day: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3. 사무엘 하 성경공부: 친교 후 본당
4. 교회 체리티 등록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5. 할리팩스 한인회 회장선거: 11/9 10AM 할리팩스한인교회
6. 할리팩스순회영사서비스: 11/7 9AM-3PM 할리팩스한인교회
7. 리멤버런스데이 한인행사: 11/11 10:30AM Korea War Memorial Stratford Park

2019. 11. 03. 118호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 주는
다트머스 한인 교회 재정 보고서

2019-10월

구분	항목	2019-10-06	2019-10-13	2019-10-20	2019-10-27	합계
수입	주일헌금	235	637	105	230	\$1,207.00
	개인도네이션					
	기타	1815.08				\$1,815.08
		수입합계				\$3,022.08
지출	사무용품				38.96	\$38.96
	친교음식준비	14.98	21.79	41.76	69.51	\$148.04
	건물렌트비	200				\$200.00
	기타	435	44.3		223.29	\$702.59
		지출합계				\$1,089.59
		총합				\$1,932.49

2019년 9월 이월금
구제헌금:\$50 선교헌금:\$50
목회자 보합료:\$285
약기구입예비: \$50

정관식준비비
김구매:\$13.66
간식:\$8.13

10월 생일자 선물&계약:\$46.52
커피값구입:\$22.99

함멜루아데이 포장지:\$11.50
엔디:\$159.75 피자구입:\$50.6
종선:\$1.44

헌금봉투&라벨:\$11.50
체리티등록서류접수 \$12.46
은행계좌비: \$15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약기구입예비
이월금	250	250	
1월	50	50	
2월	50	50	
3월	50	50	
4월	50	50	
총합	450	450	
구제/선교 헌금 \$900 (사스카톤 교회 헌금함)			
5월	50	50	
6월	50	50	
7월	50	50	
8월	50	50	
구제/선교 헌금 \$400 (태풍 드리안 피해 복구지움)			
9월	50	50	
10월	50	50	50
11월	50	50	50
12월			
합계	150	150	100



RBC Royal Bank®

Account Balances - DARTMOUTH KOREAN CHURCH

3 Nov 2019

Chequing/Savings	USD	CAD
Chequing 01943-1017292		1,497.52
Savings 01943-1017300		400.56
Total:		1,898.08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주일 예배 순서

여는기도		인도자
찬 양		다함께
성경봉독	행 16:25-34	인도자
어린이설교	믿음의 한 사람!	김승용 목사
대표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행 27:20-26	인도자
설 교	인생의 마스터 가이드	김승용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찬양		다함께
축 도		김승용 목사

목회자 칼럼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재민자가 벌써 10년이 되어갑니다. 낯설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늘 마음 속에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절대로 실수해선 안된다'였던 것 같습니다. 행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큰 실수를 해서 큰 손실을 보지는 않을까 늘 전전긍긍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의 마음에 그러한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고 노력했지만 돌아켜보면 제 지난 10년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실수와 실책들이 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도 그러한 실수와 실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꿈꾸는 사람 요셉은 아버지의 빼놓아진 편으로 다윗은 밋세바라는 여인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실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사도바울은 자신을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항해를 미룰 것을 권했지만 백부장은 사도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배를 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원치 않는 결과에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타기로 결정한 백부장 일행은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 침몰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쯤되면 사도바울이 백부장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책임을 물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오히려 사도바울은 "내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테지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와 실책에 더 큰 은혜를 부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걸 오해해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책은 분명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은 풀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십니다.

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유는 지난 10여년의 이민생활 가운데 제가 실수와 실책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의 수많은 실수와 실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삶을 붙들고 저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하심을 철저히 지키시고 저를 이끄시고 붙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의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매일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좇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그분의 음성을 좇아 나간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듯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길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를 찾아 온 산을 헤매었던 우리의 목자를 만나 그 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어깨에 매여 다시 양의 무리로 돌아옵니다.

사도일행이 탄 배는 유라굴로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고 그 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던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목까지 로마까지 무사히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어린이교회) 사도행전 16:25-34

-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2)세례를 받은 후
-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27:20-26

-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 26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